시절 당나라의 예술 양식을 그대로 체득한 인간 문화재에 해당한다. 두보는 이구년의 젊은 날로부터 화려함을, 노년의 모습에서 비참함을 함께 엿보았다. 말하자면 한 예술가의 몰락으로부터 한 시대의 문화가 쇠락하고, 나아가 왕조 자체가 멸망에 이르는 온갖 풍상을 절감한 것이다. 그 같은 충격과 슬픔이 이 작품 〈강남봉이구년〉을 관통하는 정서이다.

	시대 배경	주인공	공간	줄거리
①	고대 사회	패망한 부족 국가의 음악가	폐허	조국의 음악을 후세에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나 좌절함
②	무신 집권기	몰락한 문신가의 천재 시인	향토 사회 -개경	변화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머묾
③	조선 중·후기	천민 출신의 천재 화가	전국 방방 곡곡	변화하지 않는 신분제의 질곡을 잊기 위해 전국을 유랑하다 비참하게 생을 마침
④	구한말	판소리 명창	호남 -서울	한때는 명창이었으나 새로운 음악에 밀려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조선 왕조도 몰락해 감
⑤	현대	연예인	방송국	왕년의 인기 연예인과 과거의 팬이 우연히 버스에서 만나 지난 시절을 회상하며 화려한 부활을 기약함

17. 다음 중, 시어 사이의 관계가 인과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① (가) : 月白(월백) - 病(병)
② (나) : 期約(기약) - 송이
③ (다) : 답답 - 窓(창)
④ (라) : 틈 - 한숨
⑤ (마) : 風景(풍경) - 時節(시절)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생산력의 증가에 있었다. 그 시초는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지속된 영국의 섬유 공업의 발달이었다. 그 시기에 영국 섬유 공업은 비약적으로 생산력이 발달하여 소비를 빼고 남은 생산 잉여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으로 증가되었다. 생산량이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과거 시절과 비슷한 정도였으므로 생산 잉여는 당연한 것이었다.

(나) 물론 그 이전에도 이따금 생산 잉여가 발생했지만 그렇게 남은 이득은 대개 경제적으로 비생산적인 분야에 사용되었다. 이를테면 고대에는 이집트의 피라밋을 짓는 데에, 그리고 중세에는 유럽의 대성당을 건축하는 데에 그것을 쏟아 부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대의 서막을 올린 영국의 섬유 공업의 생산 잉여는 종전과는 달리 공업 생산을 더욱 확장하는 데 재투자되었다.

(다) 더구나 새로이 부상한 시민 계급의 요구에 맞춰 성립된 국민 국가의 정책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단일 통화 제도와 법률 제도 등의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자본주의가 점차 사회적으로 공인되어 감에 따라 그에 맞게 화폐 제도나 경제와 관련된 법률 제도도 자본주의적 요건에 맞게 정비되었던 것이다.

(라)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측면 이외에 정신적인 측면에서 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한 계기는 종교 개혁이었다. 잘 알다시피 16세기 독일의 루터(M. Luter)가 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대해 85개 조 반박문을 교회 벽에 내걸고 교회에 맞서 싸우면서 시작된 종교 개혁의 결과, 구교에서부터 신교가 분리되기에 이르렀다. 가톨릭의 교리에서는 현실적인 부, 즉 재산을 많이 가지는 것을 금기시하고 현세에서보다 내세에서의 행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막상 내세와 하느님의 사도인 교회와 성직자들은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하고 농민들을 착취했으니 실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마) 당시의 타락한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청교도라 불린 신교 세력의 이념은 기도와 같은 종교적 활동 외에 현실에서의 세속적 활동도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다. 특히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것은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살았다는 증표이며,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이었다. 기업의 이윤 추구는 하느님이 '소명'하신 것이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도 부도덕한 것이 아니었다. 재산은 중요한 미덕이므로 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었다. 근면한 사람은 부자인 것이 당연하고 게으른 사람은 가난뱅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념은 도시의 상공업적 경제 질서를 옹호해 주었으므로 한창 떠오르고 있는 시민 계급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 ㉡현세에서의 성공이 장차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라는 데 반대할 자본가는 아무도 없었다.

18.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본주의의 기본 개념
② 자본주의와 경제 지식
③ 자본주의의 발달 원인
④ 자본주의와 종교와의 관계
⑤ 자본주의의 구성과 원리

19. 위 글을 단락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 : 자본주의 성장의 결정적 이유인 생산력 증가
② (나) : 생산 잉여의 가치와 부작용
③ (다) : 단일 통화 제도, 법률 제도 등의 정비를 통한 자본주의의 발달
④ (라) : 종교 개혁과 자본주의와의 관련성
⑤ (마) : 신교와 자본주의 경제와의 관계

20. ㉠의 상황을 학생들에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자 한다.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① 나무 위에 올라가라 해 놓고 흔드는 격이다.
② 지금까지 시험을 잘 보았으므로 앞으로도 항상 시험을 잘 볼 거라고 믿는 격이다.
③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딱 맞는말 아닌가.
④ 다수가 옳다고 인정하면 소수들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⑤ 부쩍 자란 몸에 예전의 옷을 억지로 꿰맞춰 입을 수는 없는 법이다.

21. ㉡으로부터 〈보기〉와 같이 추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논리적 오류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사례는?

〈보 기〉
그렇지, 그렇게 열심히 현세에서의 성공을 강조해야 하느님 앞으로 현금이 많이 걷히겠지.

① 그는 벌써 두 번이나 회의에 지각했다. 그러므로 그와는 어떤 약속을 해서도 안 될 것이다.
② 너는 담배를 피우고 싶어한다. 그런데 담배는 폐암의 원인이라고 하지 않는가 ! 네가 폐암에 걸리고 싶어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③ 교수님, 교수님의 과목에서 낙제점을 주시면 저는 이번에 졸업을 못하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는 아버님 대신에 제가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형편입니다.
④ 소크라테스의 인생철학은 음미할 만한 가치가 없다. 바누라한테 꼼짝 못한 공처가 아닌가.
⑤ 이 책은 아주 가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 책을 사서 읽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이니까.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수령이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백성이 수령을 위해서 생겨난 것인가? 백성이 곡식과 옷감을 바쳐 수령을 섬기고, 또 수레와 말과 하인들을 내어 수령을 맞아들이고 떠나보내며, 또는 기름과 피와 진액과 골수를 다 없애서 그 수령을 살찌우고 있으니, 백성이 과연 수령을 위하여 생겨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수령이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나) 옛날에야 백성이 있었을 뿐 어찌 목민관이 있었던가. 백성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한 사람이 이웃과 다투다가 해결을 보지 못한 것을 공언(公言)을 잘하는 장로(長老)가 있으므로 그에게 가서야 해결을 보고 네 이웃이 모두 감복한 나머지 그를 추대하여 함께 만들었는데 이름을 이정(里正)이라 하였고, 또 대여섯 마을 백성들이 그 마을에서 해결 못 한 다툼거리를 가지고 준수하고 식견이 많은 장로를 찾아가 그에게서 해결을 보고는 대여섯 마을이 모두 감복한 나머지 그를 추대하고 함께 받들어서 이름을 당정(黨正)이라 하였으며, 또 대여섯 당(黨)의 백성들이 그 당에서 해결 못 한 다툼거리를 가지고 어질고 덕이 있는 장로를 찾아가 그에게서 해결을 보고는 대여섯 당이 모두 감복하여 그를 주장(州長)이라 이름지었고, 또 대여섯 주장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어른으로 삼고는 그 이름을 방백(方伯)이라 하였고, 또 사방(四方)의 백(伯)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그를 우두머리로 삼고는 그 이름을 황왕(皇王)이라 하였으니, 황왕의 근본은 이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백성을 위하여 목민관이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그 당시는 이정이 백성의 여망(輿望)에 따라서 법을 제정한 다음 당정에게 올렸고, 당정도 백성의 여망에 따라서 법을 제정한 다음 당정에게 올렸고, 국군(國君)은 황왕에게 올렸었다. 그러므로 그 법들이 다 백성의 편익(便益)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라) 후세에 와서는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황제(皇帝)가 된 다음 그 아들이나 동생을 제후(諸侯)로 봉(封)하는가 하면, 그 제후들은 또 자기 사인들을 추천하여 당정/이정으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자기 욕심대로 법을 만들어서 제후에게 주면 제후는 또 자기 욕심대로 법을 만들어서 주장에게 주고, 주장은 당정에게 주고, 당정은 이정에게 법을 만들어 준다. 그러므로 그 법이라는 것이 다 임금은 높고 백성은 낮으며, 아랫사람 것을 긁어다가 윗사람에게 붙여 주는 격이 되어, 한결같이 백성이 목민관을 위하여 생겨난 꼴이 되고 있다.

(마) 지금의 수령(守令)은 옛날로 치면 제후들인데 그들의 궁실(宮室)과 여마(輿馬), 의복과 음식 그리고 좌우의 편폐(便嬖), 시어(侍御), 복종(僕從)들이 거의 국군(國君)과 맞먹는 상태인데다, 그들의 권능(權能)이 사람을 경사롭게 만들 수도 있고, 그들의 형벌과 위세는 사람을 겁주기에 충분하다. 그리하여 거만하게 스스로 높은 체하고 태연히 스스로 좋아서 자신이 목민관임을 잊어버리고 있다.

(바) 한 사람이 다투다가 해결 방법을 구하러 찾아가면 곧 불쾌한 표정으로 하는 말이 "왜 그리도 시끄럽게 구느냐."라고 하고, 한 사람이 굶어 죽기라도 하면 "제 스스로 잘못해서 죽었다."라고 하며, ㉠곡식이나 옷감을 내어 섬기지 않으면 매질이나 몽둥이질을 하여 피를 보고서야 그치는 것이다.

- 정약용 〈목민심서〉 중에서 -

22. 위 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① 목민관이 존재하는 이유
② 목민관의 의미가 변질된 이유
③ 목민관이 되기 위한 구체적 과정
④ 목민관이 등장하게 된 배경
⑤ 현재 목민관의 횡포

23. 위 글을 쓴 이의 태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학생은?

① 영수 : 백성이 직접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역설하고 있어.
② 철민 : 과거의 법과 제도가 이상적이었다고 보고 있음에 틀림없어.
③ 재현 : 현재의 사회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해.
④ 미정 : 정치 구조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⑤ 규희 :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어.

24. 다음 중 밑줄 친 ㉠에 해당하는 한자성어는?

① 당랑거철(螳螂拒轍)
② 좌정관천(坐井觀天)
③ 함분축원(含憤祝願)
④ 가렴주구(苛斂誅求)
⑤ 부화뇌동(附和雷同)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개체가 상처를 입거나 몸의 일부가 잘린 후 그 손실 부위를 복원하는 과정을 재생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성장과 분화 과정이 수반된다. 식물은 상처를 입은 후 다양한 조직을 재생해 낼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성숙한 식물 조직들이 식물체 전체를 ㉠재생해 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식물 ㉡발생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흥미롭다. 대부분의 새로운 식물 조직들은 분열 조직이라는 특수 성장대로부터 생겨난다. 그런데도 어떤 조건하에서는 다른 식물 부위들도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식물의 상당한 부위가 그 식물체에 영구적인 상처를 입히지 않은 채로 세거될 수 있다. 실제로 가지치기는 나무의 성장을 촉진한다. 그래서 오히려 정원사들은 오랜 시간을 두고 식물의 외형을 일정하게 다듬으려고 가지치기를 심하게 하기도 한다. 우리들은 나무의 잘린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나무로 자라나는 것을 알고 있다.

동물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손실 부위를 복원할 수 있다. 불가사리의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금세 새로운 팔이 재생되기 시작한다. 새로 생긴 팔은 원래의 팔과 같은 모양과 기능을 할 때까지 계속 커 나간다. 불가사리에서 떨어져 나간 바로 그 팔 하나가 몸 중심판의 일부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다른 팔들을 만들어 내어 새로운 불가사리 개체가 된다.

[A]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불가사리의 이러한 놀라운 특성이 완전히 알려지기 전에는 굴 양식업자들이 굴 양식장에서 불가사리를 발견하면 불가사리의 팔을 하나하나 떼어 내서 물 속에 던져 버리곤 했다. 그들은 물론 그렇게 해서 불가사리를 죽여 없애 버리려는 생각이었지만 실상은 오히려 불가사리의 수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플라나리아 와충류인 듀제시아를 가지고 다양한 재생 실험을 해 볼 수 있다. 벌레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면 원래의 머리 부분의 끝이 자라서 새로이 꼬리를 만들어 내고 중간 부분은 각각 머리와 꼬리를 형성해 내며 꼬리 부분의 끝은 머리를 이루면서 자라나서 세 마리의 새로운 벌레가 만들어지게 된다. 새로 생긴 벌레들은 모두 처음에는 더 작지만 완전한 개체씩 크기가 자라나기까지 성장을 계속한다.

그리고 척추동물들도 놀랄 만한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도롱뇽은 다리를 잃으면 새 다리를 거의 완벽하게 복제해 낸다. 뼈, 근육, 신경 및 혈관들이 정확히 다시 만들어져 몸체에 적절히 붙게 되면 새 다리가 완전히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재생의 경우 생물 고유의 발생에 관한 모든 생물학적 과정들, 즉 세포 분열, 성장 및 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의문이다. 어떤 성체가 새로운 팔다리를 만들어 내면 새로 만들어진 부분은 기존의 구조와 기능에 상호 연관을 맺게 된다. 그래서 완전 성체의 경우에는 발생의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하다. 척추동물간에는 손실 부위를 복원하는 능력에 큰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척추 동물 집단은 그들의 진화상의 선조들에 비해 재생 능력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고등 동물일수록 재생 능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몇몇 가깝게 연관된 집단간이라도 재생 능력의 차이는 상당하다. 예를 들어 도롱뇽과 개구리는 둘 다 양서류이지만 다리를 재생해 내는 능력은 상당히 다르다. 개구리는 다리가 절단되면 상처는 치유해 내지만 도롱뇽과 달리 정상적인 새 다리로 발육시키지는 못한다.

심지어 사람도 사지나 손가락을 재생해 내지는 못하지만 약간의 재생 능력을 가지고는 있다. 피부에 난 상처는 피부 세포의 재생으로 치유되는데 피부 조직이 정도 이상으로 손상 받으면 그 상처는 흔적을 남기면서 불완전하게 치유되게 된다. 몇몇 내부 기관들에서도 어느 정도는 재생이 가능하다. 상처를 입었을 때의 혀의 재생 능력은 상당히 우수하다. 간의 일부가 외과적으로 제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간조직이 정상 크기에 상응할 만큼 상당히 재생해 낼 수 있다. 뼈와 근육의 조직들도 상처가 아주 심하지 않을 때는 재생된다.

재생에 관하여 아직 연구되어야 할 점이 많지만 손실 부위의 재생에는 생물 발생과 동일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어떤 세포들은 다양한 유형의 세포로 분화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듯하다. 어떤 조건하에서 생물체의 일부가 손실되면 그 부위의 세포들은 다시 배세포로서 기능하기 시작하여 그 손실 부위를 대체해 내는 것이다.

25.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문 기사를 작성하려고 한다. 다음 중 신문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양한 생명체들 - 생물체들 간의 재생 능력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
② 생태계의 신비 - 생물체의 발생 과정과 재생 과정과의 관계
③ 과학과 생태계 - 생물체의 재생 과정에 관한 과학적 규명 가능성
④ 새로운 과학 이론 - 생물체의 발생 과정과 재생 과정에 대한 과학적 접근
⑤ 생태계와 삶 - 생물체의 재생 능력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실생활에의 이용

26. 위 글을 읽고 난 후 모둠 토론을 할 때 예상되는 학생들의 반응이다. 위 글에 대한 이해가 가장 부족한 학생은?

① 영호 : 특수 성장대가 훼손되지만 않는다면 식물체는 무한히 재생 가능할 겁니다.
② 철민 : 대부분의 생물체는 손실에 대비한 재생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③ 경규 : 음, 정교하고 복잡하게 형성된 생물체일수록 재생 능력이 떨어질 겁니다.
④ 평규 : 하지만 생물체의 재생 능력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게 규명된 것은 아닙니다.
⑤ 고운 : 뿐만 아니라 사람의 내부 기관의 재생 능력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요.

27. 〈보기〉는 ㉠과 ㉡의 의미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에서 말하는 관계와 가장 유사한 관계로 짝지어진 것은?

〈보 기〉
'재생 : 발생'의 의미 관계는 손상된 개체가 다시 자라나 원상태의 조직체가 만들어짐을 뜻하는 말과 난자(卵子)나 배자(胚子)가 자라서 하나의 개체가 새로이 생겨남을 뜻하는 말의 관계이다.

	㉠ 재생(再生)	㉡ 발생(發生)
①	답습(踏襲)	계승(繼承)
②	복구(復舊)	건설(建設)
③	발견(發見)	발명(發明)
④	보존(保存)	개발(開發)
⑤	보수(補修)	개량(改良)

28. [A] 부분을 읽고 떠올리기에 가장 알맞은 속담은?

① 티끌모아 태산이다.
②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이다.
③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모양새나.
④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⑤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여 온다.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저 왜노(倭奴)란 것은 섬 가운데 조그만 오랑캐로서 천지간에 사특한 기운을 타고 난 것들이로되, 오늘날 우리 나라의 난신적자(亂臣賊子)와 부화뇌동하여 기어이 우리 종묘 사직을 전복(顚覆)하고, 우리의 산과 바다를 제 자원으로 만들며, 우리의 민생을 종으로 만들려 하는도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작은 일에 속하는 것이니, 심지어 남의 정신을 파괴하고 남의 정치와 법마저 변경하기를 감히 기도하는도다.

애급(埃及)*이 인종을 멸망당한 것은 서방에 밝은 전감(前鑑)*이 있고, 유구(琉球)*가 일본의 고을이 되고 만 것은 동양에 엎어진 전철(前轍)*이 있도다. 우리 백성은 오라로 묶이고 형틀에 매여서 노예의 처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저들은 수레로 싣어 가고 배로 운반하여 장차 동해같이 깊은 욕심을 채우리로다.

이제 우리는 죽을 때에 임하여 부르짖기보다는 시기를 타서 일제히 일어날 일이다. 아, 저들은 변경과 개혁을 마음대로 하고, 우리 임금을 폐하고 세움조차 저들 손에 달렸구나. 그대들 향교(鄕校) · 목사(牧使) · 수령(守令)들과 무릇 사 · 농 · 공 · 상으로서 진실로 한푼 반푼의 사람 마음이 있다면, 오백 년 종국(宗國)을 어찌 잊을 수 있으랴! 28대의 현성(賢聖)이 차례로 계승하였으며, 이 나라 비록 쇠하였다 하나 삼천리 산천이 달라지지 않았다. 대신(大臣)직을 맡은 자는 적의 앞잡이 노릇 아니 하는 자가 없고, 상투 자르고 얄궂은 말 하는 놈은 모두 왜놈의 배짱을 가진 자들이다. 비록 천벌에는 오랫동안 빠졌으나, 어찌 잠깐인들 사람의 베임에서 벗어나랴!

우리들은 조상의 피를 받아 이 문명한 나라에 태어났으니,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을지언정 작은 조정에서는 살지 못하겠고, 하늘처럼 이고 살기는 오직 태황제(太皇帝) 계신 줄만 알리로다. 의사(義士)를 불러 이끌고 영웅을 불러일으켜, 피를 뿌리며 단(壇)에 올라 천지에 고하여 맹세하고 울면서 대궐을 바라보매, 기운은 바야흐로 바람과 구름처럼 설레이도다.

비록 무기가 정예하지 못하다 하나, 맹자의 말과 같이 덕이 있으면 몽둥이를 가지고도 진 · 초(秦楚)의 갑옷 입은 군사를 칠 수 있나니, 금성탕지(金城湯池)*를 잃었다 하지 말라. 뭇사람의 애국심이 성을 이룰 수 있으리라. 관동과 영남의 의병들이 이미 연락의 형세를 이루었고, 구미의 강국들이 이미 연맹해 줄 기미가 있도다. 주저하여 남에게 뒤지지 말고, 다행스러운 이 때에 맞춰 힘을 다하자. 궁벽하고 먼 고을은 기회를 보아 토벌할 수 있으니, 큰 성과 도시에 힘을 합쳐 함께 멸할지라.

제각기 반드시 죽겠다는 뜻을 분발하여, 일에 뒤떨어진 죽음을 뉘우치지 말라! 조선에 살고 조선에 죽어 아버지와 스승의 교훈을 저버리지 말라. 적을 죽이거나 적에게 붙거나 결단코 조종(祖宗)의 정한 상과 벌을 따를 것이라. 격문이 도착되거든 ㉠풀이 바람을 따르듯 하라. 복심(腹心)을 헤쳐 널리 고하노라.

- 한말(韓末) 의병을 모집하는 격문(格文)

*애급(埃及) : 이집트
*전감(前鑑) : 거울로 삼을 만한 지난 일
*유구(琉球) : 지금의 오키나와 일대에 있었던 나라
*금성탕지(金城湯池) : 견고한 성

2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왜노에 동조하는 무리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② 우리 나라의 국력이 매우 신장되었다.
③ 우리의 전투 역량은 능히 적을 무찌르고도 남을 정도다.
④ 다른 지역의 의병들과 힘을 합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⑤ 큰 성과 도시를 탈환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30. 위 글의 글쓴이가 독자를 설득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영탄적 어법을 반복하여 호소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② 고사(故事)와 비유를 사용하여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③ 극한적 상황을 설정하여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피아(彼我)의 구별이 불확실하여 논지가 흐려지고 있다.
⑤ 새로운 가치관을 지양하고 기존의 인식을 고수하고 있다.

31. 위 글의 내용 흐름으로 볼 때, ㉠의 뜻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응하라.
② 아무도 모르게 조심조심 일을 도모하라.
③ 임금과 백성의 뜻을 헤아린 후에 행동하라.
④ 모두 일시에 함께 떨쳐 일어나라.
⑤ 어떠한 일에도 신중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라.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님다히 消쇼息식을 아므려나 아쟈 ᄒᆞ니 오ᄂᆞᆯ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ᄅᆞᆷ올가. 내 ᄆᆞᄋᆞᆷ 둘 ᄃᆡ 업다. 어드러로 가쟛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놉픈 뫼ᄒᆡ 올라가니 ㉠구름은ᄏᆞ니와 안개ᄂᆞᆫ 무ᄉᆞ 일고. 山산川쳔이 어둡거니 ⓐ日일月월을 엇디 보며 咫지尺쳑을 모ᄅᆞ거든 千쳔里리를 ᄇᆞ라보랴. ᄎᆞ하리 믈ᄀᆞ의 가 ᄇᆡ길히나 보쟈 ᄒᆞ니 ᄇᆞ람이야 믈결이야 어둥정 된뎌이고. 샤공은 어디 가고 븬ᄇᆡ만 걸렷ᄂᆞ니 江강天텬의 혼자 셔셔 디ᄂᆞᆫ ᄒᆡ를 구버보니 님다히 消쇼息식이 더옥 아득ᄒᆞᆫ뎌이고. 茅모簷쳠 ⓑᄎᆞᆫ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半반壁벽靑쳥燈등은 눌 위ᄒᆞ야 ᄇᆞᆯ갓ᄂᆞᆫ고. 오ᄅᆞ며 ᄂᆞ리며 헤ᄯᅳ며 바니니 져근덧 力녁盡진ᄒᆞ야 풋ᄌᆞᆷ을 잠간 드니 精졍誠셩이 지극ᄒᆞ야 ⓒ쑴의 님을 보니 玉옥 ᄀᆞᄐᆞᆫ 얼굴이 半반이나마 늘거세라. ᄆᆞᄋᆞᆷ의 머근 말ᄉᆞᆷ 슬ᄏᆞ장 ᄉᆞᆲ쟈 ᄒᆞ니 눈물이 바라 나니 [   ] 情졍을 못다 ᄒᆞ야 목이조차 메여ᄒᆞ니 오뎐된 溪계聲셩의 ᄌᆞᆷ은 엇디 ᄭᆡ돗던고.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나) 六月(유월)ㅅ 보로매 아으 별해 ᄇᆞ룐 ⓓ빗 다호라.
도라보실 니믈 젹곰 좃니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七月(칠월)ㅅ 보로매 아으 百種(백종) 排(배)ᄒᆞ야 두고,
㉡니믈 ᄒᆞᆫ ᄃᆡ 녀가져 願(원)을 비ᅀᆞᆸ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八月(팔월)ㅅ 보로ᄆᆞᆫ 아으 ⓔ嘉俳(가배) 나리마ᄅᆞᆫ,
니믈 뫼셔 녀곤 오ᄂᆞᆯ날 嘉俳(가배)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 작가 미상, 동동(動動)

(다)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예 물을 건너시네.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가신 임을 어이할꼬.

公無渡河
公竟渡河
墮河而死
當奈公何

- 백수광부의 처,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32. (가)~(다)를 서로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 (나), (다)에는 모두 이별의 슬픔이 나타나 있다.
② (가), (나), (다)는 모두 여성적 화자의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다.
③ (가)의 화자는 대상을 향한 행위가 적극적인 데 비해, (나)의 화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④ (가)는 서사를 위주로, (다)는 묘사를 위주로 전개하고 있다.
⑤ (나)는 자연의 속성을, (다)는 자연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각각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33. 내용의 전개 과정을 고려해 볼 때, (가)의 [   ] 안에 들어갈 구절로 적절한 것은?

① 말인들 어이 ᄒᆞ며
② 내 ᄉᆞ셜 드러 보오
③ 님이신가 반겨ᄒᆞ시
④ ᄒᆞᆫᄃᆡ 녜쟈 ᄒᆞ얏더니
⑤ 첩첩ᄒᆞᆫ 심정 플려 혜니

34. (다)를 모방하여, 〈보기〉의 조건에 따라 글을 써 보았다.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다)의 주제 의식을 유지할 것
• 현실 극복의 의지를 보일 것

① 슬픈 일이다. 내가 그토록 숭배해 마지않던 그분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다니……. 더구나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으니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지만 그분의 위대한 업적과 숭고한 정신은 이 땅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② 헤어짐은 끝이 아니다. 적어도 나와 그와의 사이에서 헤어짐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니 이제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말이다. 나 역시 새로운 출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③ 봄바람이 불어온다. 멀리 월악산 꼭대기에 보이던 눈도 흔적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겨울이다. 지난 겨울 돌아가신 아버지,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살아생전에 자식들을 위해 고생만 하시다 이제 좀 편안해지실 만 하니까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④ 그의 느닷없는 떠남은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한다. 마지막으로 그를 보기 위해 공항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그를 태운 비행기는 떠나고 있었다. 그가 야속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거자필반(去者必反)이라는 말도 있다. 언젠가는 재회할 날이 있을 것을 믿으며 내 삶에 좀더 충실하려 한다.
⑤ 어머니의 무덤가에 할미꽃이 한 송이 피어 있었다. 그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도 어머니를 닮았을까! 다소곳하기도 하고 인자스럽기까지 한 그 할미꽃. 하지만 이제는 볼 수 없는 어머니. 그 모습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것 같다. 이제 겨울이 다 가오는데, 어머님이 계신 곳은 춥지나 않을는지……. 다시 한 번 어머님의 명복을 빈다.

35. ㉠과 ㉡의 화자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두 문장에 드러난 화자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① 바라옵건대, 임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기를…….
② 어떤 시련이 닥쳐 올지라도 임과 함께라면 모두 물리칠 수가 있을 터인데…….
③ 신이시여! 모든 장애를 물리쳐 주시고 임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④ 고난이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련이 없는 사랑도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⑤ 이제 고난은 끝났습니다. 천지 신명도 임과 내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 주고 계십니다.

3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그리움의 대상을 비유하고 있다.
② ⓑ : 화자의 처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 : 화자와 대상을 연결해 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
④ ⓓ : 화자의 위급한 처지를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 : 화자의 처지와는 대조적인 상황으로 제시되었다.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언어는 인간만이 배울 수 있다. 비교적 지능이 발달해 있다는 침팬지 같은 짐승들을 대상으로 언어를 가르치려는 실험을 많이 하였지만, 이들이 습득하는 수준은 인간이 성취해 내는 수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비하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만 세 살 정도밖에 안 되는 몽매한 나이에 진화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모어(母語)에 유창해진다. 나이가 든 뒤에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쩔쩔맨 경험을 생각해 본다면, 어린이의 언어 습득 능력이 얼마나 신비한 능력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나) 언어의 습득은 인종이나 지능과 관계 없이 누구에게나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의 언어를 일단 배우고 난 뒤에는 그것을 일상 생활에서 자유 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 마치, 자전거나 스케이트를 한번 배우고 나면, 그 뒤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탈 수 있는 것과 같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말하기나 글쓰기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은 우리의 언어 능력을 좀 더 고차원적인 단계로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지, 우리말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정규 학교에서 국어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길을 물어 볼 때, 자기 나라 말을 몰라서 고생하는 사람은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말을 일단 배운 뒤에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구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다) 우리는 언어를 이처럼 쉽게 배우고 또 사용하고 있지만,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판단을 내리는 과정의 내면을 살펴보면, 그것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극히 간단한 언어 표현에 관한 문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만도 엄청난 양의 사고 과정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는 "27의 제곱은 얼마인가?"와 같은 계산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지 않으면 안 되면서도,

"너는 냉면 먹어라, 나는 냉면 먹을게."

와 같은 문장이 어딘가 이상한 문장이라는 사실과, 어떻게 고쳐야 바른 문장이 된다는 사실을 특별히 심각하게 따져보지 않고도 거의 순간적으로 파악해 낼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이 문장이 논리적으로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하면, 일반인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내기 위해서는 국어의 문법 현상에 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렇게 엄청난 양의 언어적 판단을 이른바 ㉡직관(直觀)이라고 하는 신비한 능력에 의해서 처리해 가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모두 인간의 두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처리 및 운용 과정에 대해서는 아는 것보다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많다.

(라)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여 문자 그대로 무한(無限)에 가까운 생각들을 표현할 수가 있다. 우리는 조금만 노력하면 다음과 같은 말을 쉽게 지어낼 수 있는데, 이 말은 끝내지 않고 마냥 이어 갈 수가 있다.

[철수는 집에 들러서 가방을 챙기고 난 후 다시 학교로 가서 친구를 만나 점심을 먹고 엄마의 전화를 받자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고……]

이 때 이러한 말을 우리가 암기해서 표현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말하는 사람은 이와 똑같은 문장을 어디선가 들어 본 적이 없는데도 새로이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듣는 사람 역시 그 의미를 금방 이해해 낼 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언어를 개방적 체계라고 부른다.

언어의 개방성은 위에 든 예처럼 문장의 길이에 제한이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방성이라는 의미 속에는 언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고가 미치는 범위에 제한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까지가 포함된다. 언어는 개방적이고 무한한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반드시 보았거나 들은 것, 존재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용, 봉황새, 손오공, 유토피아, ……'등과 같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산물이나, 나아가서는 '희망, 불행, 평화, 위기, ……'라든가, '의문, 제시, 제한, 효과, 실효성, ……' 등과 같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까지 거의 무한에 가깝게 표현할 수가 있다.

(마)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여 상상이나 추상의 세계같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까지 사고할 수 있지만, 사실상 언어는 가장 간단한 것조차도 그것이 가리키는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언어의 이러한 특성을 분절성이라 한다.

언어에 의해서 분절(分節)이 이루어져 형성된 한 덩어리의 생각을 개념이라고 한다. 언어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 개념을 단위로 하여 운용된다.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이 '개념'이라는 것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명사 하나를 예로 들어 보자. 가령, '꽃'과 같이 매우 쉬운 단어라 할지라도 이는 상당한 수준의 추상화 과정을 거친 후에야 형성된 개념이다. 우리가 '꽃'이라고 부르는 대상들은 실제로는 '무궁화, 진달래, 개나리, 목련, ……'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바꿔 말해서, '꽃'이라는 말의 의미 내용은 우리가 수많은 종류의 꽃들로부터 공통 속성만을 뽑아 내는 과정, 즉 추상화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하위어(下位語)들을 묶어 표현하는 말들을 총칭어(總稱語)라고 하는데, 그 개념은 인간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나간다면, 사실 하위어인 '무궁화'라는 단어 자체도 또한 추상화된 개념에 해당한다. 무궁화의 종류도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모양도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말을 배울 때부터 이러한 추상화 과정에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실제로 고유 명사 같은 특별한 말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의 대부분은 이같이 고도로 〈A〉[추상화된 개념]을 실어 나르고 있다.

3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인간은 일단 언어를 습득한 후에는 별도의 노력 없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너는 냉면 먹어라, 나는 냉면 먹을게"라는 문장이 잘못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문법적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③ 사고가 미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더라도 문장의 길이에 제한이 없다면 그것은 곧 언어의 개방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④ 언어는 거의 무한한 체계이므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까지 모두 표현할 수 있다.
⑤ 언어의 분절을 통해 이루어진 개념에 대한 이해는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38. 〈보기〉는 ㉡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를 잘 읽고 ㉠의 전제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보 기〉
모국어 화자는 문법을 따로 배우지 않더라도 자유자재로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어려서부터 모국어를 익히는 과정에서 이미 문법을 내재화했기 때문이다. 모든 모국어 화자는 문법을 바탕으로 언어를 구사하는 데 나름대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 판단 기준을 문법적 직관이라 한다. 그런데 이 문법적 직관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언어 활동을 반성해 보고, 틀린 부분을 고쳐 보는 습관을 기름으로써 문법적 직관이 발달된다.

① 언어 습득 능력은 성장함에 따라 확실히 신장된다.
② 인간의 두뇌 속에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모국어를 습득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다.
③ 모든 언어는 선천적으로 인간의 두뇌 속에 완벽하게 내장되어 있다.
④ 언어의 습득은 어릴 때만 가능하고 성인이 되면 불가능해진다.
⑤ 언어는 모국어에 한해서라면 만 세 살이 되면 구사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다.

39.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차를 새마을호, 무궁화호로 나누는 것
②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
③ 무지개의 색을 빨,주,노,초,파,남,보 7가지로 표현하는 것
④ 사람의 얼굴을 뺨, 턱, 이마 등으로 구분하는 것
⑤ 저녁노을을 보고 붉은색으로 물들었다고 표현하는 것

40. 〈보기〉는 '〈A〉추상화된 개념'과 관련된 용어 설명이다.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은 표현법이 드러나는 작품은?

〈보 기〉
작가가 문학 작품을 표현할 때 형상화시키기 어려운 추상적 개념들에 대해서 감각적 이미지나 물리적 현상 등으로 구체화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뜨거운 사랑'이라는 표현은 '사랑'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뜨겁다'라는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나, '떨어진 자존심'에서처럼 '자존심'이라는 추상어를 '떨어지다'라는 물리적 현상화를 통해 구체화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① 어져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ᄃᆞ냐.
이시라 ᄒᆞ더면 가랴마ᄂᆞᆫ 제 구ᄐᆞ여
보내고 그리ᄂᆞᆫ 정(情)은 나도 몰라 ᄒᆞ노라.
② 삼삼 오오(三三五五) 야유원(冶遊園)에 새 사람이 나단 말가.
꼿 피고 날 저물제 정처 업시 나가 잇어.
백마 금편(白馬金鞭)으로 어듸어듸 머무는고.
③ 생사(生死) 길은 /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 가는 곳 모르온저
④ 님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우희 치달아 앉아 이수(以手)로 가액(加額)하고 오는가 건넌 산 바라보니
거머횟들 셔 있거늘 져야 임이로다.
⑤ 冬至(동지)ㅅ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春風(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ᄃᆞᆯ하 노피곰 도ᄃᆞ샤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긔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져재* 녀러신고요.
어긔야 즌 ᄃᆡ를 드ᄃᆡ욜세라.
어긔야 어강됴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긔야 내 가논 ᄃᆡ 졈그롤셰라.*
어긔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 작가 미상, 정읍사(井邑詞)

* 져재 : 저자에, 시장에 *졈그롤셰라 : 저물까 두렵습니다.

(나) 펄펄 나는 저 [꾀꼬리]는
암수 서로 정다운데
외로운 [나]의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꼬.

翩翩黃鳥(편편황조)
雌雄相依(자웅상의)
念我之獨(염아지독)
誰其與歸(수기여귀)

- 유리왕, 황조가(黃鳥歌)

41. (가)와 (나)의 공통점을 바르게 말한 것은?

① 시적 화자는 괴로운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한다.
② 시적 화자는 강한 의지로 현실을 극복하려고 한다.
③ 시적 화자는 임과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④ 시적 화자는 인간사를 자연 현상에 대비시키고 있다.
⑤ 시적 화자는 임과의 사랑이 부질없음을 토로하고 있다.

42. (나)에서 '꾀꼬리-나'의 대응 관계와 유사한 관계가 성립되는 시어를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 ᄃᆞᆯ - 즌 ᄃᆡ
② 노피곰 - 머리곰
③ 어강됴리 - 다롱디리
④ 져재 - 즌 ᄃᆡ
⑤ 드ᄃᆡ욜세라 - 졈그롤셰라

43. 〈보기〉는 (가)의 배경 설화이다. 이를 참고하여 (가)를 연극으로 각색하고자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정읍(井邑)은 전주(全州)에 속해 있는 현(縣)이다. 이 고을의 어떤 사람이 행상(行商)을 하는데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그 아내가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며, 남편이 밤에 다니다가 해(害)를 입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스런 마음을 진흙에 빠지는 것에 비유하여 노래했다. 세상에 전하기를 남편을 기다리던 언덕에 망부석(望夫石)이 있다고 한다.

- 일연, 〈삼국유사〉

① 아내는 남편이 귀가하지 않자 불안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 산에 오른다.
② 아내는 남편의 귀갓길을 환히 비추어 달라고 달님에게 간절히 빈다.
③ 아내는 남편이 어두운 시장 거리에서 악한을 만나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을 걱정한다.
④ 아내는 기다려도 오지 않는 남편을 언제까지나 기다린다.
⑤ 아내는 남편이 시장 거리에서 치명적인 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그 곳에 달려간다.

44. (나)의 배경 설화인 〈보기〉를 참고할 때, (나)에 대한 여러 견해 중 나머지 넷과 다른 관점에서 감상한 것은?

〈보 기〉
유리왕 3년 10월에 왕비 송씨가 죽었다. 왕은 다시 두 여자를 계실(繼室)로 얻었으니, 한 명은 화희(禾姬)로서 골천 사람의 딸이고, 한 명은 치희(雉姬)로서 한인(漢人)의 딸인데, 두 여자가 왕의 총애를 얻기 위해 다투므로 서로 화목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왕은 양곡(凉谷) 동쪽과 서쪽에 따로 궁궐을 짓고 각기 살게 했다. 후에 왕이 기산(箕山)에 사냥을 가서 7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이 때 두 여자가 싸웠다. 화희가 치희를 꾸짖어 말하기를 "너는 한족(漢族)의 천한 여자로 어찌 무례함이 이렇게 심한가?"했다. 치희는 부끄럽고 한(恨)이 되어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뒤를 좇았으나 치희는 화가 나 돌아오지 않았다. 왕은 일찍이 나무 밑에서 쉬면서 꾀꼬리들이 날아 모이는 것을 보고 느낀 점이 있어 노래를 지어 불렀다.

- 김부식, 〈삼국사기〉

① 수현 : 시적 대상과 화자의 대조적인 상황은 화자의 슬픔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면서 시의 구조에 안정감을 주고 있어.
② 지웅 : 화희(禾姬)와의 싸움에서 치희(雉姬)가 진 것은 당시에 토착 부족이 중국 부족을 누르고 득세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어.
③ 혜수 : 작품에 나타난 유리왕의 탄식은 화희(禾姬)와 치희(雉姬)로 대표되는 두 부족 간의 갈등을 화해시키지 못한 국왕으로서의 슬픔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군.
④ 성균 : 부족 연합 국가의 통치자였던 유리왕은 국가가 내분의 위기에 휩싸이자 위기감과 함께 고독감을 느끼게 되고, 그 때 부른 탄식조의 사랑 노래가 이 작품인 것 같아.
⑤ 지민 : '화(禾)'는 벼를, '치(雉)'는 꿩을 뜻하는 한자래. 그러니까 화희(禾姬)가 치희(雉姬)를 물리쳤다는 것은 유리왕 대에 이르러 수렵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변모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

45. 작품 및 배경 설화를 함께 고려할 때, (가)와 (나)의 시적 화자가 나눌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 :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힘겹고 두려운 일이죠. 혹시 그가 돌아오지 못할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에요.
② (나) :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영영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가 버린 것에 비하면 돌아오리라는 희망이 있다는 건 행복한 편이 아닐까요? 내 연인은 영영 가 버렸거든요.
③ (가) : 애석한 일이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 떨칠 수 없어 그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 달라고 달님에게 빌고 또 빌어요. 내 소망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④ (나) : 그래요. 당신 말이 옳은 것 같네요. 나도 저 암수 꾀꼬리에게 그들처럼 사랑하는 임과 함께 있게 해 달라고 간절한 기원을 드려야겠군요.
⑤ (가) : 옳아요. 기다림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가 올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겠죠. 기다리다 지쳐 돌이 된들 어때요? 내가 그를 그리워하고 사랑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요.

◈ 언어영역 정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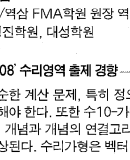
1	④	10	⑤	19	②	28	⑤	37	③
2	⑤	11	③	20	⑤	29	⑤	38	②
3	⑤	12	④	21	②	30	②	39	①
4	③	13	②	22	③	31	④	40	⑤
5	③	14	①	23	①	32	④	41	③
6	②	15	⑤	24	④	33	①	42	①
7	④	16	④	25	②	34	④	43	⑤
8	②	17	⑤	26	①	35	④	44	①
9	④	18	③	27	②	36	④	45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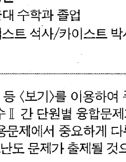
2 교시 수리영역

• Premium Final Test 집필진

한상범
한양대 대학원 석사
강남구청 수리영역 대표강사

원정희
고려대 수학과 졸업
스카이 에듀 교육 부장


김희삼
서초/역삼 FMA학원 원장 역임
前 정진학원, 대성학원


손광균
서울대 수학과 졸업
카이스트 석사/카이스트 박사과정 수료

◎ 08' 수리영역 출제 경향

단순한 계산 문제, 특히 정오 판단 문제 등 〈보기〉를 이용하여 푸는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또한 수10-가나와 수Ⅰ, 수Ⅱ 간 단원별 융합문제가 출제될 것이며, 개념과 개념의 연결고리를 통한 응용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리가형은 벡터 부분에서 고난도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심화미적분은 기본 개념과 공식 암기가 필요한 낯선 개념들이 등장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다.

◎ Premium Final Test Key Point

개념원리가 문제풀이의 관건이 됨에 따라 문제를 증명하고 파헤치는 능력이 필수이다. 출제율이 가장 높은 문제를 분석하고 08' 수능에 나올 법한 신유형 문제까지 수록된 최고의 문제풀이 지침서가 될 것이다.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계산문제와 교과서 내용이 중심이 되어 난이도 있게 응용된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정답률이 낮은 추론문제를 다수 수록하였다. 또한 이과생들을 위하여 이차곡선~벡터 단원, 미적분에 관련된 고난도 문제들을 구성하여 실전에 가장 유사한 문제를 통해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문제조합이다.

(가)형

1. A, B, C는 이차 정사각행렬이고

$AB^2C=AB=\begin{pmatrix}14 & -5\\ -11 & 4\end{pmatrix}$, $ACB=\begin{pmatrix}3 & -1\\ -2 & 1\end{pmatrix}$

일 때, 행렬 A는?

① $\begin{pmatrix}3 & -1\\ -2 & 1\end{pmatrix}$ ② $\begin{pmatrix}-3 & 1\\ 2 & -1\end{pmatrix}$ ③ $\begin{pmatrix}14 & -5\\ -11 & 4\end{pmatrix}$ ④ $\begin{pmatrix}3 & -2\\ -2 & -1\end{pmatrix}$ ⑤ $\begin{pmatrix}-14 & 5\\ 11 & -4\end{pmatrix}$

2. 수열 $\{a_n\}$에서 a_n은 -1 또는 2의 값을 택한다. 첫째항에서 제 30항까지의 합 $\sum_{n=1}^{30} a_n$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60이다.
ㄴ. 항상 2로 나누어 떨어진다.
ㄷ. 항상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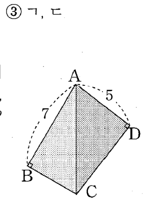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ㄴ, ㄷ

3. 테니스 단식 경기에 20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풀리그 (다른 모든 선수와 한 번씩 경기를 갖는 것)로 경기를 하였다. i번째 선수가 이긴 경기의 수를 w_i, 진 경기의 수를 f_i라 할 때, 다음 〈보기〉의 내용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단, 비긴 경기는 없다.)

〈보 기〉
ㄱ. $w_i+f_i=19(i=1, 2, \cdots, 20)$
ㄴ. $\sum_{i=1}^{20} w_i=\sum_{i=1}^{20} f_i$
ㄷ. $\sum_{i=1}^{20} w_i^2=\sum_{i=1}^{20} f_i^2$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에서 $\angle ABC=\angle ADC=90°$이고 $\overline{AB}=7$, $\overline{AD}=5$일 때, $\overrightarrow{AC}\cdot(\overrightarrow{AB}+\overrightarrow{AD})$의 값은?



① 74 ② 70
③ 35 ④ 24
⑤ 0

5. 행렬 $A=\begin{pmatrix}2 & 0\\ 1 & 2\end{pmatrix}$에 대하여 A^n의 (1, 1)의 원소와 (2, 1)의 원소의 합을 $f(n)$이라 하자. $\log_2 f(30)$의 값을 구하면?

① 30 ② 31 ③ 32
④ 33 ⑤ 34

6. 육상선수 형우의 최근 100회 동안 100 m 달리기 기록을 각각 $x_1, x_2, \cdots, x_{100}$ (초)라 하면

$\sum_{i=1}^{100} x_i=1100$, $\sum_{i=1}^{100} x_i^2=12104$이고

그 분포는 정규분포에 가깝다고 한다. 어느 대회의 예선을 통과할 수 있는 기록이 11.1초라하면 형우가 이 예선을 통과할 확률은?

〈표준정규분포표〉

z	$P(0\leq Z\leq z)$
0.5	0.1915
1.0	0.3413
1.5	0.4332
2.0	0.4772

① 0.6915 ② 0.8413
③ 0.9332 ④ 0.9664
⑤ 0.9772

7. 1 부터 10까지 번호가 붙은 10개의 주머니가 벽에 나란히 걸려 있고, 이들 주머니 속에는 각각 흰 구슬 6개, 검은 구슬 3개씩이 들어 있다. k번(k=1, 2, …, 9) 주머니에서 1개의 구슬을 꺼내어 k+1번 주머니에 넣는 작업을, 1번 주머니부터 시작하여 9번 주머니까지 계속한 후에, 10번 주머니에서 1개의 구슬을 꺼낼 때 그 것이 흰 구슬일 확률을 구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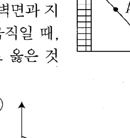
① $\frac{7}{10}$ ② $\frac{2}{3}$ ③ $\frac{3}{5}$
④ $\frac{1}{2}$ ⑤ $\frac{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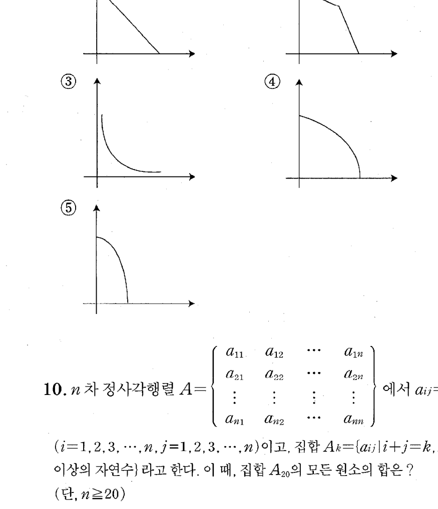
8. 함수 $f(x)=-\left(\frac{1}{a}\right)^x$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a>1$일 때, $x_1<x_2$이면 $f(x_1)<f(x_2)$이다.
ㄴ. $0<a<1$일 때, $y=f(x_1)$의 그래프는 $y=\log_a x$의 그래프와 직선 $y=-x$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다.
ㄷ. $x>0$에서 $1<p<q$일 때, $y=-\left(\frac{1}{q}\right)^x$의 그래프는 $y=-\left(\frac{1}{p}\right)^x$의 그래프보다 위쪽에 그려진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ㄷ ⑤ ㄱ, ㄴ, ㄷ

9. 길이가 1m인 나무막대를 벽면과 나란히 세워 놓았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무 막대를 3등분하는 점 중 가장 위쪽에 있는 점을 P로 표시하고 나무 막대의 양 끝이 벽면과 지면에 닿으면서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일 때,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개형으로 옳은 것은?





10. n차 정사각행렬 $A=\begin{pmatrix}a_{11} & a_{12} & \cdots & a_{1n}\\ a_{21} & a_{22} & \cdots & a_{2n}\\ \vdots & \vdots & \vdots & \vdots\\ a_{n1} & a_{n2} & \cdots & a_{nn}\end{pmatrix}$에서 $a_{ij}=ij$

$(i=1,2,3,\cdots,n, j=1,2,3,\cdots,n)$이고, 집합 $A_k=\{a_{ij}|i+j=k, k$는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한다. 이 때, 집합 A_{20}의 모든 원소의 합은? (단, $n\geq20$)

① 675 ② 685 ③ 695
④ 705 ⑤ 715

11.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연속함수 $f(x)$가

$$\lim_{x\to0}\frac{f(x)}{x}=\lim_{x\to0}\frac{f(x)}{x-a}=b$$

를 만족할 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f(f(a))=0$
ㄴ. $\lim_{x\to0}\frac{xf(\sin x)}{1-\cos x}=0$
ㄷ. $\lim_{x\to0}\frac{2^{f(\frac{1}{2})}}{2^{f(\frac{1}{2})}+2^{f(\frac{1}{2})}}=\frac{1}{2}$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12. 1부터 3까지의 자연수가 한 개씩 쓰여진 3장의 적색카드와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한 개씩 쓰여진 6장의 청색 카드를 다음 세 조건에 따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보 기〉
Ⅰ. 처음 카드는 적색이다.
Ⅱ. 마지막 카드는 청색이다.
Ⅲ. 적색 카드는 연속으로 놓이지 않는다.

① $2\cdot(4!)^2$ ② $3\cdot(4!)^2$
③ $(5!)^2$ ④ $2\cdot(5!)^2$
⑤ $3\cdot(5!)^2$

13. xy평면 위의 임의의 점 P에서 구 $(x-5)^2+(y-4)^2+(z-3)^2=4$에 접선을 그어 그 접점을 T라 하자. $\overline{PT}$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점 P를 잡을 때, 접선 $\overline{PT}$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는?

① $\frac{7}{3}\pi$ ② $\frac{10}{3}\pi$
③ $\frac{11}{3}\pi$ ④ 3π
⑤ 4π